

힘내라

중소기업

(주)고기팜

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중간 유통 없이 산지가 배송
 정육점 '지금배달' 내달 론칭

“축산물 유통 및 배달 과정을 개선해 사장님들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 대신 제품 품질과 위생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고기팜의 정가재 대표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축산업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고기팜'을 개발했다.

지난해 7월 론칭한 '고기팜'은 축산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소비자-생산자 중심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다. 고기팜은 모바일 및 PC를 통해 소비자가 고기의 종류, 품종, 등급, 부위, 요리별로 선

“B2C 구조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줄이겠다”

택하면 맞춤형으로 제품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으로, 판매자 정보와 도축 경과일·축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육가공 협력 업체는 고기팜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한다. 또한 도축, 가공, 유통 등 모든 협력 업체의 HACCP 인증을 필수화해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고기팜은 기존의 축산물 유통에서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개발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커머스 및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지만, 신선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육업계는 배달 서비스에 한계가 존재했다. 기존의 축산물은 농장, 도축장과 수 차례의 육가공을 거친 후 정육점, 마트, 식당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품의 신선도는 떨어지고 유통되는 시설의 위생 상태는 불투명하다. 또한 최종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받



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고기팜'을 개발한 (주)고기팜의 정가재 대표. /고기팜 제공

아보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실사를 운영하던 정 대표는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축산·육가공 업체를 만나봤는데, 그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신선도 저하에 대한 우려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음에 안타까웠다”고 고기팜의 개발 계기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기팜은 과감하게 중간 유통을 없애고 소비자와 판매자만을 남기며 유통 비용을 대폭 줄였다.

고기팜은 또 판매업체 최저수수료 정책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다. 초기에 축산·육가공시설 전문 건

설사를 운영하던 정 대표는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축산·육가공 업체를 만나봤는데, 그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신선도 저하에 대한 우려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음에 안타까웠다”고 고기팜의 개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홈쇼핑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8~30% 정도의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 정산 기간도 길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하며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언택트 소비패턴 변화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고기팜은 판매자에게 최대 1,000원의 2% 수수료를 부과하며 1~2주 이내 정산된다. 정 대표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시설투자와 제품 품질에 대한 투자로 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30여개의 육가공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고기팜은 동네 정육점의 입점을 앞두고 있다. 음식과 식자재를 배달하듯,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배달시키는 실시간 주문 서비스 ‘지금배달’을 오는 2월 중으로 런칭할 계획이다. ‘지금배달’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동네의 자주 거점 정육점에서 고기를 신선하게 바로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배달대행 중개플랫폼 ㈜스파이더아이앤씨와의 업무협약과 각 지역 판매자의 LBS

(위치 기반 시스템)와 연동을 통해 고기 구매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정 대표는 “일정 브랜드의 독점 플랫폼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기팜이 소비자의 고기 구매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동네 정육점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더 나아가 ‘고기의 문화화’를 꿈꾼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중개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SNS처럼 이용하며 각종 레시피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는 것이 고기팜의 최종 목표다.

정 대표는 “각종 축산 정보, 나만의 레시피 등 음식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온라인 요리대회나 축산물 기부의 장 등을 마련해, 축산물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축산물 전문 포털이 되고자 한다”며 “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린 기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모집

내달 4일까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운영회)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양성을 위해 내달 4일까지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을 모집한다

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자는 만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이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입주 공간 제공, 교육·코칭, 판로개척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

로 지원한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문의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전남지역본부 운영회 본부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가에게 기회와 문이 열려 있으며,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 경영서 손 떼나

재계 관계자 “광주 붕괴 사태 책임 통감...거취 문제 속고”

광주에서 잇단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이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와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번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2일 광주 참사 현장에 내려가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과 사고 수습 방안 및 향

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주말인 전날 서울 자택으로 올라와 근본적인 수습책과 함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속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에 정몽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재계 관계자 ‘정 회장 이번 사태 책임 통감...거취 문제 속고중’ 받아들이고 경영진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 문제를 속의 중언 것으로 안다”며 “회사 경영진들도 어떤 방식이든 회장의 결단 없이는 이번 사태 수습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정 회장이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금주 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와 실종자 수색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 회장의 입장 표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철뉴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경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헬월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도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맞춤형 구인구직 '일자리매칭플랫폼' 오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지역본부(이하 중진공)는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일자리매칭플랫폼'을 신규 오픈하고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와 우수인재 매칭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구직자와 구인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설치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5일 '일자리매칭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AI 추천 매칭, AI 모의면접·인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플랫폼 제공 등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차 시스템으로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만 가능했다면, 신규 플랫폼에서는 기업회원기능과 AI 추천 매칭 기능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직접 매칭도 가능해졌다.

기업은 구인 공고별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우수인재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고, 인재 검색을 통해 직접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직자는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수출지원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기업의 구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도 직접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취업 시까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취업 컨설팅과 취업 매칭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은 우수인재 채용을 희망하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구직자는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 구인공고 등록하면 되고, 구직자는 이력서를 등록하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로또 6/45(998회)

당첨번호	13, 17, 18, 20, 42, 45 보너스 41
등위	당첨금액
1등	2,076,499,657원
2등	78,358,478원
3등	1,568,354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89회)

등위	당첨번호
1등	4조 585 449
2등	각조 585 449
3등	각조 85 449
4등	각조 5 449
5등	각조 449
6등	각조 49
7등	각조 9
보너스	각조 106 050

광기술원, 국가연구시설 운영 '우수'

한국광기술원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실시한 '2021년 국가연구시설 성과조사'에서 '장비공정센터(시험생산1동)'가 시설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NFE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포털(ZEUS)에 등록된 376개 국가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조사를 실시했다.

광기술원은 센터 이용 기업의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사용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가스 실시간 누출 모니터링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기술원은 광융합 기업이 장비를 설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제공하고,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R&D)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왔다.

앞서 구축한 '휴일 없는 24시간 운영시스템'은 보유 연구시설·장비를 기업에 상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광산업체의 광제품 개발과 수출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기술원은 센터 이용 기업의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사용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가스 실시간 누출 모니터링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